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



이복현
西村브리핑

건설 경기가 울더라도 계속 나빠지면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렵게 워크아웃 결정이 난 태영건설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다. 쌓이는 미분양, 기증되는 금리 부담의 3중고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크다. 개발·시행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지방은 상황이 훨씬 나쁘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절규까지 들린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졌다. 약 2만 개인 종합건설사 중 2347곳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736곳, 1901곳이 폐업했을 정도로 건설업계 개별회사의 부침은 늘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그런데, 왜 건설사들만 부도가 날까? 건설사들과 함께 PF 사업에 뛰어들어 금융회사 중에 부도난 곳이 하나라도 있을까? 없다. 신용경색에 몰린 곳이 있을까? 없다. 왜 그럴까?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연이 국내 중소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40~600위)의 '부동

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 분석'을 보면 금융회사나 기금으로 구성된 신탁사가 참여한 총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이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 준공을 하지 못하면 중소기업회 사에게 대주단의 채권을 인수하라는 계약이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까?

책임 준공을 못하는 사유가 시공사만의 책임일까? 시행사나 대주단이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땅속에 어마어마한 암반이 있을 수도 있다. 간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주어진 건축비로 도저히 완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모두 건설사 책임으로 돌린다.

혹시 하자라도 발생한다면 건설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한다. 불공정계약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뉘플 짓을 리스크 관리란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이 앞장서 하고 있다. 불공정계약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채무인수 리스크에 쓰러진 건설사가 속출한다. 울 들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울해 만기가 돌아오는 책임준공관리형(책준형) 사업장도 전국에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

니 PF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수백 개다. 정부로부터 인허가 특혜를 받은 소수의 회사만이 제한된 경쟁을 하며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는 각종 협회에 등록된 회사만 수만 곳이다. 완전경쟁시장이다. 관련 종사자는 무려 수백만명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의 기여와 역할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비가 올 때 우산을 뺀지 않는 것’이 금융사들의 도덕적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왜 이런 암체 짓을 할까? 인센티브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익을 따른다. 누가 인센티브를 받아갔을까? 경영자인가 실무자인가? 인센티브를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진다. 돈을 많이 벌어들인 금융업이 건설해지는 것이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이 아니다.

이복현 금감감독원장은 금융만 봐서는 안 된다. 금융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 좀 먹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야 한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금융이 올바른 역할을 하는 지 감독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전후방 효과가 특별히 큰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 않도록 선량한 금감감독 정책이 필요한 때다. /ljh@metroseoul.co.kr

실손보험과 도덕적해이



김주형
(금융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병원 방문은 연례 행사다.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면 발목, 무릎 등 관절과 인대가 남아나질 않을 테다.

최근 발목 인대가 파열돼 정형외과를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부상 부위를 살펴 보더니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와 처방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하자 한달 동안 매주 초음파와 주사치료를 처방했다. 치료 끝자락에는 체외충격파까지 권했다. 의사는 “실손이 있으니 원한다면 치료를 다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간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발생한다.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3% 수준이다. 이제는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질 정도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미용 시술 등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주사치료 등도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17조7129억원이었던 비급여 본인 부담액은 2022년 32조 3213억원까지 증가했다. 실손보험 덕에 안과·정형외과·피부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됐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최대

한 받아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수입을 늘려왔다.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입맛에 맞게 의료요품을 즐길 수 있다.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는 17세기 보험사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한 뒤 조심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덕적해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보험은 설계부터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들은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과 캐나다 등은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은 필연적으로 도덕적해이가 따르고 이를 막을 장치를 내부에 장착해야 완전한 보험이 될 수 있다. /gh471@

오늘의 운세 4월 26일 (음 3월 18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48년생 신용이란 진리이다. 60년생 공부에 투자는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72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도와주는 이가 옆에 있다. 84년생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말미암는다.

소 37년생 성공에는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다. 49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기대 이상이다. 61년생 어린이는 어머니를 모방하며 스승으로 인생을 배운다. 73년생 소개로 인해 사랑의 감정이 싹튼다. 85년생 운이라는 것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호랑이 38년생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자. 50년생 신념이 있다면 두려움도 없다. 62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는 법이니 야망을 베풀자. 74년생 상하 협력하는 것을 배우도록. 86년생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토끼 39년생 마른 눈에 물이 밀려 들어온다. 51년생 밤을 이겨내는 자만이 밝은 새벽을 볼 수 있다. 63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실망하지 않는다. 75년생 우물거에서 송농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87년생 남보다 절약이나 하나의 습관이다.

염 40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52년생 자식 자랑을 입이 아프게 할 수 있는 날. 64년생 재산이 없어질까 두려움과 우울함이 있다. 76년생 일하는 사람만이 휴식의 맛을 안다. 88년생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발전되어 왔다.

뱀 4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희망이 보인다. 5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 65년생 종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77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용기를 내어 일하자. 89년생 무슨 일이나 지나치면 격정거리가 생긴다.

말 42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가족과의 대화도 조심. 54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66년생 기다리면 문서도 잘 살펴야 한다. 78년생 가까운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자. 90년생 걱정 없는 한가한 하루.

양 43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55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6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9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는 하루이다. 91년생 천지와 자연은 다 감응이 있다.

원숭이 44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56년생 생각하면 인생은 늘 드라마라 할 수. 68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는 잘 간직해야 한다. 80년생 좋은 약이 많아요 마음의 병약은 없는 듯하다. 92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다.

닭 45년생 계몽은 누구든 자신에게 불성실한 것. 57년생 산에 오르는 데는 추락의 위험도 있다. 69년생 미웠던 일에 정성과 열의를 다시 갖자. 81년생 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93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개 46년생 하루가 즐거우나 손재수도 있을 것. 58년생 곱질을 까지 않고 밥을 먹을 수는 없다. 70년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밥도 먹지마라. 82년생 모르는 분야라면 불평하지 말고 배우면서 해나가야. 94년생 처음부터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돼지 47년생 오후 즐거운 일이 생긴다. 59년생 자제력과 헌신이 따르면 결과는 얻는다. 71년생 직장에서 기회가 주어진다. 83년생 주식투자는 낯장 광고보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접하여 투자해야. 95년생 재물운인 의식주 걱정이 없어서 보람을 느낀다.

김상회의四季 색다른 재테크

재테크라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예금을 떠올린다. 더 범위를 넓히면 채권이나 어음 등도 들 수 있다. 요즘 색다른 재테크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재테크로 특히 투자금이 적은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하나는 리셀테크로 어떤 물건을 정가나 싼 가격에 구매한 뒤에 웃돈을 얹어서 다시 되파는 걸 말한다. 특징은 짧은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리셀테크가 가능한 건 명품이나 희소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만 가능하다. 인기를 끄는 건 투자방법이 간단하고 적은 돈으로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면 백화점 명품관에서 오픈런을 해도 손에 넣기 힘든 품목들이 있고 이런 품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한다. 스포츠 스타들과 협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신발들은 대표적인 리셀테크 품목이다. 리셀 판매가격이 몇 배로 뛰기도 한다. 한우 투자도 색다른 재테크로 꼽을 수 있다. 한우 송아지의 소유권을 여럿이 나눠서 구매하는 재테크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고 송아지가 자라서 팔리면 그때 수익을 나눠 갖는 독특한 방식이다.

송아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판매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질병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각 투자인데 투자하려는 자산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무모한 발상이든 아니든 사회가 다양화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투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곁은 돈이라고 하지 않던가. 명리학에서 재생살財生煞이라 하여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살기운이 함께 작용하니 머리만 잘 돌리지 말고 살煞, 피를 보지 않도록 분수를 알고 행동하시길.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선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2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